

클래식 기타리스트 정어진

독일 프랑크푸르트,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클래식 기타 연주자, 편곡가, 공연기획자로서
실내악 협업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온 음악가이다.

예술고등학교를 피아노 전공으로 입학해 아버지의 권유로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인 대한민국의 유명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을 사사하며
클래식 기타로 전공을 바꿨다. 이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음악대학에서
Christopher Brandt, David Kvaratskhelia 를 사사하였으며,
르네상스 류트를 Yasunori Imamura 에게,
앙상블 지휘를 Helmut Österreich 에게 배우며
연주 영역을 실내악 전반으로 확장하였다.

대학 재학중 Gesellschaft der Freunde und Förderer 장학금을 수료하였으며,
프랑크푸르트 Yehudi Menuhin 재단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였다.

■ 마스터클래스

David Russell, Göran Söllscher, Scott Tennant, John Dearman,
Jérémy Jouve, Zoran Dukić, Laura Young 등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들의 마스터클래스를 수료하였다.

■ 연주 및 활동

만 19세에 독일 오버우어젤 Christuskirche Oberursel에서
첫 개인 독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독일을 중심으로 수백 회 이상의 초청 및 기획 연주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주 무대로는
Paul-Hindemith-Saal Hanau, Wuppertal Opera House,
Goethe House Frankfurt, Schirn Kunsthalle Frankfurt 등이 있다.

■ 주요 성과

2023년 독일 마부르크 신년 공식 행사에서
예술장관 및 주요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주를 진행하였으며,
Oberhessische Presse, Wiesbadener Zeitung 등
다수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같은 해 작곡가 Friedrich Zehm의 미발표 작품을
독일 부르크홀츠하우젠 시청사에서 초연하며,
해당 작품을 초연한 최초의 한국인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 음악적 특징

전통 레퍼토리뿐 아니라 현대음악까지 폭넓게 다루며,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해 왔다.

Paul Hindemith, Béla Bartók, Igor Stravinsky, John Cage 등의 작품을 연주하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대음악제, 파울 힌데미트 연구소, 마인츠 Schott 출판사 등에서의 초청 연
주를 통해
현대음악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부산 출신 작곡가 백현주, 진소영, 김은진 등의 창작곡을 무대에 올리며
동시대 작곡가들 과의 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대예술가 Etelka Kovacs-Koller의 작품에 참여하는 등
타 장르와의 협업 역시 병행하고 있다

■ 실내악 및 협업 활동

독일 비스바덴 주립극장에서 소프라노와의 협업을 통해 독일 극장 무대에 데뷔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성악가 및 연주자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실내악 중심의 연주 활동을 이어왔다.

Frankfurter Gitarren Trio, Neues Frankfurter Gitarren Duo,
Frankfurter Gitarren Orchester, Quartett ZEPT 등 독일에서의 앙상블 활동을 거쳐,
부산 기타 트리오, 부산 페스티벌 기타 앙상블 등 국내 무대로 활동을 확장하였다.

듀오부터 콰르텟, 기타 오케스트라에 이르는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을 수행하며,
폭넓은 앙상블 경험을 바탕으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현재 활동

현재 부산을 거점으로
〈442Hz 클래식기타 앙상블: 확장〉 프로젝트를 기획·총괄하며,
클래식 기타를 단순 독주 악기가 아닌 실내악의 한 축으로 확장하여,
클래식기타 연주자들이 성장할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있다.

—— 기타리스트 정어진 프로필 한글 요약 버전 ——

사람과 사람사이 442Hz 대표

클래식기타 앙상블: Expansion 프로젝트 기획 및 총괄

독일 프랑크푸르트 예후디 메뉴인 재단 아티스트 2022-2028

독일 오버우어젤 크리스투스 성당 데뷔독주

브루크홀츠하우젠 시청, 비스바덴 주립극장

프랑크푸르트 모차르트 잘, 괴테 하우스 프랑크푸르트

하나우 파울히데미트 홀, 괴닉슈타인 성

프랑크푸르트 국립 현대 미술관, 아틀리에 오스트 프랑크푸르트

쉬른 쿤스트 할레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현대음악제

스페인의 밤, 프랑크푸르트 바로크 축제, 마인츠 솟 출판사 초청 연주

프랑크푸르트 힌데미트 연구소 초청 연주

프랑크푸르트 기타 트리오, 노이에스 프랑크푸르트 기타 듀오,

프랑크푸르트 기타 오케스트라

부산 루체테 앙상블, 부산 기타 트리오, 부산 기타 페스티벌 앙상블

— — — 기타리스트 정어진 개인 인터뷰 형식 초안 — — — — —

“피아노처럼, 클래식 기타도 실내악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순간까지.”

클래식 기타리스트 정어진은 연주자이자,
클래식 기타의 확장 가능성을 구조로 사유하는 기획자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연주 활동을 거쳐 2024년 귀국한 그는,
현재 부산을 기반으로 클래식 기타 중심의 실내악 공연을
반복 가능한 음악의 무대이자 성장의 기반으로 쌓아가고 있다.

그의 작업은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는다.
연주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Q.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피아노 학원을 보고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재미있어서 비교적 오래 다녔습니다.

중간에 플룻을 배운 적도 있는데,
당시 좋아하던 사람이 플룻을 배우고 있어서
말을 걸어볼 계기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음악보다도
그 시기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Q. 클래식 기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피아노 전공으로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부산 동래의 한 칼국수집이었고,
그분이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클래식 기타를 처음 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연주를 들었는데,
그때의 소리와 공간의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연주하는 손의 움직임이
유난히 느리게 보였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 첫 레슨을 받게 됐고,
선생님께서 제 손을 한참 보신 뒤
이 길로 충분히 크게 활동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계기로 전공을 바꾸게 됐습니다.

Q. 독일에서의 경험이 현재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프랑크푸르트 예후디 메뉴인 장학재단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공연장이 아닌 공간에서의 연주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음악이 장소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예후디 메뉴인의 철학은
음악을 결과로서의 연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매개로 바라보는 관점에 가까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공연을 하나의 완결된 결과가 아니라,
연주자와 관객, 공간을 잇고 지속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Q. 독일에서의 생활이 개인적인 생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까?

생활 환경의 영향이 컸습니다.

독일 집 근처 산책을 자주 했는데
집 근처에 묘지가 많았고,
일상적으로 그 공간을 지나게 되면서
사람은 결국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끝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판단한 것,
제가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을
미루지 않고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작업들은 그 판단 이후에 이어진 것입니다.

Q.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는 동시에,
그 연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수 있는 공연 형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반려견을 위한 클래식 기타 콘서트를 공동 기획하며
기존 공연 형식의 확장 가능성을 실험했고,

현재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클래식 기타 전문 연주자들과 함께
기타를 독주 악기가 아닌 실내악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반주에서 피아노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듯,
클래식 기타 역시 반주와 실내악에서 당연하게 선택되는
장르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방향입니다.

Q. 연주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연주의 완성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연주가 반복될 수 있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결과보다
같은 방식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뿐 아니라
그 구조를 직접 설계하는 작업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Q. 본인의 음악적 방향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기타를 중심에 두고 작업하고 있지만,
기타가 항상 전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중심이 되기도 하고,
필요하면 완전히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의 변화 속에서
전체 음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매달 열리는 정기 공연 시리즈를 통해
활동 기회가 적었던 젊은 연주자들은 새로운 관객을 유입시키고,
필드에서 검증된 연주자들은 반복 관람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정기 공연 외에도 외부 공연과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서로 다른 관객층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프로젝트를 알리고,
관객과의 연결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클래식 기타 앙상블이 ‘장르’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독주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존 공연 구조를 넘어,
부산의 클래식 기타 전문 연주자들이 하나의 운영 구조 안에서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등장했다.

클래식 기타리스트 정어진이 기획한
<442Hz 클래식 기타 앙상블: 확장>은
비영리 민간단체 ‘사람과사람사이 442Hz’가 운영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클래식 기타를 독주 악기에서 벗어나
실내악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고,
반복 가능한 공연 운영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연주자나 이벤트 중심의 공연이 아니라,
동일한 형식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현재 부산 지역 민간 소공연장을 중심으로 공연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Q. <442Hz 기타앙상블: 확장>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부산에는 공연장이 많지만,
클래식 기타를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공연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기타는 여전히 독주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고,
실내악 형태의 공연은 대부분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일에서 실내악과 앙상블 중심의 무대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공연이 하나의 운영 구조로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확인한 것은
국내에는 그 구조 자체가 부재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클래식 기타 중심의 실내악 작품들 중에는
이미 완성도 높은 곡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곡들을 꾸준히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연주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연주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해 부산의 고충진, 김경태 기타리스트와 함께한 공연을 통해
이 형식이 반복 가능한 구조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를 계기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공연을 한 번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식이 반복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Q. 기존 기타 공연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이 프로젝트는 연주자가 아니라
공연의 운영 방식을 중심에 둡니다.

일반적인 공연은 특정 연주자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대부분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 프로젝트는
편성과 레퍼토리를 고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일한 형식의 다른 공연이 반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듀오, 트리오, 콰르텟 등 다양한 편성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역시 상황에 따라 교체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연주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복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가 있어야 공연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연주자 구성 방식도 기존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고정 멤버 중심의 팀 구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코어 연주자를 중심으로,
회차별로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인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연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 단계부터 연주자들이 함께 참여해
프로그램 구성, 아이디어 제안, 운영 방식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연주자가 단순 참여를 넘어
기획과 운영까지 이해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조는
연주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주자 개개인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 민간 소공연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클래식 기타 앙상블은 음량과 편성의 특성상
대형 공연장보다 소공연장 환경에 더 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 소공연장은 운영 방식이 유연하기 때문에
같은 형식의 공연을 반복하고 축적하는 데 유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주자로서
관객과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을 나누며
밀도 높은 교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공연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특정 공간에 고정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며
구조가 안정되면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공연은 공공 공연장에서도 병행되고 있으며,
공간의 규모보다 공연이 어떻게 반복되고 축적되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Q.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지속 가능한 구조인가요?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된 프로젝트입니다.

공연 1회 단위의 손익 구조를 표준화하고,
소규모 공연장에서 반복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손실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안정되면
공연 회차의 축적 자체가 프로젝트의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반복 구조 안에서
관객은 자연스럽게 축적되고,
연주자는 지속적인 무대를 통해 성장하며,
지역 공간과의 연결도 함께 형성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공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 관객층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나요?

관객을 단기간에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활동 기회가 적었던 젊은 연주자들은 새로운 관객을 유입시키고,
필드에서 검증된 연주자들은 반복 관람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만듭니다.

또한 정기 공연 외에도
외부 공연과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각기 다른 관객층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프로젝트를 알리고,
관객과의 연결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Q.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단기적으로는 부산 내 소공연장을 중심으로
공연 운영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군부대, 반려견 교육기관, 대학 강사진,
한국 기타협회 지부 등과의 협업이 진행 중이며,

해외 공연과 외부 행사, 정기 공연 시리즈 등
다양한 형태의 무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확장은 목적이 아니라,
이 구조가 다양한 환경에서도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현재는 확장 자체보다
구조의 반복 가능성과 지속성을 확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Q. 이 프로젝트를 통해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고 싶은 것은
하나의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입니다.

클래식 기타가 특정 연주자의 독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실내악 안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사용되고,
그 연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좋은 작품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작품들이 반복적으로 연주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주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특정 연주자나 이벤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클래식 기타 앙상블이 하나의 장르처럼 작동하는 상태,

그리고
“피아노처럼, 클래식 기타도 자연스럽게 함께 실내악 악기로 연주되는 악기” 로
인식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